

아덴에서 복음증거

본문: 행17:16-34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 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다. 그 복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포함되었으므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래오바고로 끌고 갔다(19). 아래오바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덴의 법정이다. 그곳은 일종의 종교 재판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 법정의 재판관들은 대단한 지위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다. 그들 앞에서 연설 혹은 변론 한다는 것은 결코 편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변론 가운데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변론의 접착점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이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긴 신을 섬긴 그들에게 그 신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다. 그가 증거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 다섯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다.

둘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 하신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다섯째,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다.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주장하는 우연히 원자들이 결합했다는 창조설과 스토아학파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적 세계관과 다르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인격적 창조주시며 그가 만든 모든 것의 인격적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신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구조들 개념들에 제한 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바보 같은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 하신 분이시다.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신 그분 자신이 유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공급을 필요로 하신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한 혈통이란 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말은
각나라의 역사와 지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통제아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인간이 그분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이러한 소망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성취되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떼어 놓은 죄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 하기 때문이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28절
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29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은 옳은가? 그렇다. 비록 구속의 견지에서 보
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오직
양자 됨과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자녀이지만, 창조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
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며, 모든 인류는 그분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받는
그 분의 후손이며 그 분의 피조물이다. 더구나 우리는 그 분으로부터 유래
되었으며, 그 분께 의존하고 있는 그 분의 후손이므로, 그 분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금이나 은이나 돌
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논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인데 그 분을
인간이 만든 금이나 은같은 것으로 새김으로 우리의 지배하에 둘 수 있겠는
가? 우상 숭배는 논리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을 왜곡하
게 뒤죽 박죽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제단에 새겨진 비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
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바울은 그들의 무지를 입증했다. 이제 그는 그러한
무지는 치유 될 수 있다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 주셨기
(14:17) 때문이다. 그분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마땅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로서 그것
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
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 왜 그런가? 다가오는 심판의 확실성 때문
이다. 바울은 청중에게 심판에 대한 3가지의 불변한 사실을 말한다. 첫째로
그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둘째, 그것은 의로운 것이 될 것이다.
셋째, 그것은 명확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밝혀지지 않았
지만 심판관은 이미 정해 졌기 때문이다. 그 심판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마
10:42).

그의 결론은 부활이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1절하반절). 바울은 그의 설교가 이교도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부터 시작 했지만 결국 특별 계시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잊지 않았다. 그 결과 믿는자들이 나왔다.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처럼 바울의 설교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열매를 맺는다.